

특성화 고등학생들의 창업동아리활동이 창업의지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양영석(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주임교수)*

김명숙(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전담교수)**

국 문 요 약

2017년까지 500개의 비즈쿨 학교가 지정될 예정이다. 비즈쿨 학교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활동중에서 창업동아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특성화 고등학생들의 창업동아리 활동은 창업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창업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창의성, 리더십, 협동심, 문제해결 능력 등을 신장할 수 있어서 졸업 후에도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에 따라 실제 창업동아리 활동의 유무에 따라 창업의지나 진로성숙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가설로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총 274명의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창업의지와 진로성숙도(결정성/확신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대상 창업교육이나 진로교육은 기본 방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취적인 사고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자기주도를 기반한 문제해결중심형 창업동아리 활동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핵심주제어: 창업동아리, 특성화 고등학교, 문제중심학습법(PBL), 프로젝트중심학습법, 창업의지, 진로성숙도

1. 서론

지난 2014년까지 총 1,362개 학교(중복포함)에서 연인원기준 829천명이 창업에 관련된 이론과 실무 체험교육을 바탕으로 교육을 받았다. 2015년도에도 일반형 비즈쿨 대상학교가 80개, 자율학기제 연계형 150개 등의 대상학교를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다(KISED, 2015). 2017년까지 약 500개의 청소년 비즈쿨 대상학교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자율학기제 연계형 비즈쿨을 별도로 운영하여 기업가정신 교육과 창업교육을 청소년의 진로선택과 연결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창업교육을 진로교육과의 연계하여 청소년들에게 사회 전반의 창조적 균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을 신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는 스스로 진로에 대한 의미를 찾고 추구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진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창업교육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신장하고 청소년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Byun, et al.,2014). 따라서 창업교육이 성공적인 효과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다양한 학습자료와 교수방법을 동원하

여 실제 현장과의 유기적인 정보교류로 실무중심의 교수법과 다양한 교육매체를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창의적이고 실무지향적인 현장중심의 교육을 수행해야 한다(Nam, 2012). 청소년 단계에서의 기업가정신교육은 구체적인 비즈니스 기술을 획득하기보다는 직업세계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진로선택을 탐색하고 추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Jin, et al.,2012).

Park(2013)연구에 따르면 창업은 단순히 조직을 경영하는 문제가 아니라 창조성(Creativity)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의 총체적 산물로 간주되고, 개개인의 창조적 역량만으로는 부족하여 팀 활동이 필수적이라고 사실을 제기하고 있다.

팀 활동을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력과 비판적 사고력, 창의성을 증진시키며, 학생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하며,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기른다. 또 모둠 활동을 통하여 협동심을 신장시키며, 다양한 평가 방법의 활용한 다각도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창업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 중심의 흥미롭고 창의적인 창업이나 진로탐색 등의 활동이 가능해지고, 학생 스스로 주어진 문제를 창의적이고 실제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여 학생중심의 능동적인 동아리활동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 주저자,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창업학과 주임교수(ytony@hanbat.ac.kr)

** 교신저자,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창업학과 전담교수(kmsjws@hanbat.ac.kr)

· 투고일: 2015-10-01 · 수정일: 2015-10-27 · 게재확정일: 2015-10-28

하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많은 창업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프로그램들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종합적인 진로개발의 관점에서 창업가적인 의식과 태도, 요구되는 역량과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즈쿨 창업교육프로그램의 대상자인 청소년들에게 창업동아리활동을 통해 보다 창의적으로 진로개발의 방향성을 도출하고 효과적인 창업준비활동을 무엇일 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II. 이론적 배경

2.1 특성화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10.6.29)에 의한 고교 체제개편 내용에 따르면 고교 유형을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4개 유형으로 개편하였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시행령 91조에서 『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조기에 진로를 결정하여 전문가로서 양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로 정의하고 있다.

2015년에 특성화고등학교는 전체 고등학교 2,344개 중에서 498개로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 특성화 고등학생수는 302,021명으로 전체 고등학생 수 1,278,008명으로 약 23.6% 정도로 나타났다.

<표 1> 2014/2015년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단위:개교, 명)

년도	유형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2015	일반고	1,537	1,278,008	90,878
	특목고	148	67,529	7,245
	특성화고	498	302,021	26,588
	자율고	161	140,708	10,288
	합계	2,344	1,788,266	134,999
2014	일반고	1,520	1,314,073	90,174
	특목고	143	66,928	6,934
	특성화고	499	313,449	26,938
	자율고	164	144,922	10,442
	합계	2,326	1,839,372	134,488
학교수는 신설교, 기존교, 휴교포함(폐교, 분교 제외) 교원 수는 정규교원 및 기간제교원, 휴직교원 포함(특직교원 및 강사 제외)				

교육통계연구센터(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ervice) <http://kess.kedi.re.kr>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 중학교에서 충분한 상담과 진로적성 검사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로선택이 이루어져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지 않아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전문적인 진로상담이 필요로 하고 있다. 학교 진로교육 운영에 관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다음

과 같은 내용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첫째, 특성화 고등학교의 진로교육은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고취하고, 적극적인 진로 탐색을 통해 건강한 직업의식과 태도를 배양한다. 둘째,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진로교육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을 양성하고 개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취업역량을 기르는 데 주력해야 하며, 학생들은 취업을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자신의 진로를 체계적으로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셋째,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진로교육을 통해 취업하고자 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나 자격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 요구되는 학습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특성화 고등학교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취업 후에도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다시 진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취업 후진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성화 고등학교 진로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실질적인 취업 준비에 필요한 서류 준비와 면접 등 구직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

2.2 팀활동을 통한 학습

2.2.1 팀활동 정의 및 효과

팀이란 팀 내부에서 공동의 목표와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상호의존적이며 팀 외부의 인정을 받는 개인의 집단이다. 프로젝트란 특정한 주제를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학습자가 책임을 지고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활동이다. 팀 프로젝트는 개인이 집단을 이루어 주어진 특정한 주제나 문제에 대하여 공동의 목표와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연구하는 활동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팀 프로젝트를 통한 문제해결과정이 또래집단의 협동학습을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협동학습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면, 협동학습은 기본적으로 학습자들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중심으로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적인 학습 활동으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Yang, 2015).

나눔과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협동지성(Synergistic Intelligence)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융합형 사고’가 요구되며,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와 협력을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협업형 인재’가 필요하다. 타인과의 소통, 협력 등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은 창조과정에서 필수적이기 때문이다(Yang, 2015).

2.2.2 프로젝트 학습방법

프로젝트 학습이란 말 그대로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수업을 의미하며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활동으로 모든 과정이 학습자에 의해 계획되고 조사되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토론되고 관련된 정보를 수집, 분석, 결론을 도출하여 결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학생

중심의 활동이다(Han, 2008. 프로젝트 학습은 여러 가지 통합적인 환경에서 경험한 일상적인 일들을 주제나 문제축은 체험 중심으로 교수·학습의 장으로 이끌며, 자주적 선택학습, 탐구적이고 개방적인 교수, 교수·학습 방법으로 고등 정신 기능을 신장시킨다(Katz & Chard, 1989). 또한 문제해결이나 과제 목표 성취를 위한 자료를 수집, 분석, 종합, 토의하게 되고 수행활동 전반에 대한 자기 성찰로써 학습이 일어나며, 이런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자율성과 상위 인지적 사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2.2.3 문제중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g)방법

문제중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g)는 학습자를 학습의 주체로 보고 학습자 중심의 학습이론인 구성주의를 기반으로 한 학습방법으로 새로운 지식 획득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문제를 사용한다는 것이 가장 핵심인 방법론이다. 문제중심방법론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맥락 속에서 접근하면서 학습자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Kim, et al., 2014). 한국 대부분의 의과대학은 교육방법으로서 PBL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PBL은 1960년대 말, 학생들이 실제 의사처럼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하며 실질적인 진료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기 위해 개발한 북미의 교육해결안이였다(Choi, et al., 2014)

문제중심학습의 교육적 효과는 네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Lee, 2013). 첫째,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즉, 학습자는 복잡하고 실제적이며 비구조화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스스로 정보를 찾아 수집하고 평가하여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창의적 사고, 전문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기르게 된다. 둘째, 흥미유발과 지식 습득을 가능케 한다. 소집단으로 해결책이나 산출물이 제출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문제 상황에서 서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개념을 정교화 할 수 있는 기회를 풍부하게 갖는다. 셋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 학습과정에서 자신의 학습 요구와 학습 과제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주도하고, 자신의 학습을 책임지면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게 한다.

2.3 창업동아리 활동

2.3.1 동아리 :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와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서 앎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과 이외의 활동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건전하고 다양한 집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나눔과 배려를 실천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개발·신장하여 창의적인 삶의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고시).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개 영역으로 구성하되, 학생의 발달 단계와 교육적 요

구 등을 고려하여 학교 급별, 학년(군)별, 학기별로 영역 및 활동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동아리활동은 예술·체육활동, 학술문화활동, 실습노작활동, 청소년단체활동 등의 활동으로 나누고 창업활동은 실습노작활동으로 일의 소중함과 즐거움을 깨닫고 필요한 기본 기능을 익혀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세부적인 활동은가사활동, 생산활동, 노작활동, 창업활동 등으로 나누고 있다.

2.3.2 창업동아리의 정의와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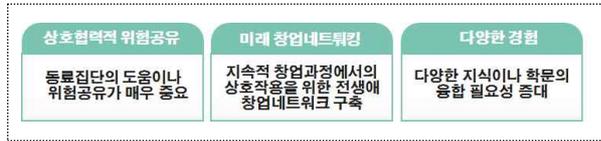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비롯한 정보통신 매체의 발달로 조성된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은 청년창업과 관련한 기존의 논의에 새로운 측면이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창업은 단순히 조직을 경영하는 문제가 아니라 창조성(Creativity)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의 총체적 산물로 간주되어야 한다. 둘째, 지식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시장에서 유효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창조적 역량만으로는 부족하며 팀 활동이 필수적이다(Park, 2013).

아이디어발굴에서 사업화까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팀단위의 창업을 훈련할 수 있는 활동이 바로 창업동아리 활동으로 보고 있다. 또한 Yang & Kim(2015)연구에 따르면 매력적 창업아이템은 (1) 크고 성장하는 목표시장에, (2) 독특한 기술(강력한 경쟁기술 대비하여 차별성 있는)을 접목하여, (3) 잘 팔릴 다양한 제품을 개발 한 후, (4)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견고한(수익성 높은) 비즈니스 모델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창업아이템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팀의 역할이 어떤 활동보다 필요함을 볼 수 있다.

집합적 창조성과 창업동아리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창업동아리가 다양한 학문적 배경과 경험을 가진 학생들로 구성된 조직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뛰어난 소수의 개인보다는 역량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다양한 지식, 기술, 경험, 인생관, 능력, 전문성 등을 갖춘 학생들 사이의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더욱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들이 발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창업동아리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2명 이상의 학생들이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통해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생성하거나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는 등 창업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Park, 2013).

<그림 1>은 창업동아리를 통해 상호협력적 위험 공유, 다학제간 융합, 미래의 창업 네트워킹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Park, 2013). 상호협력적 위험 공유는 취약한 창업생태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도음들을 공유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다학제간 융합은 다양한 배경이나 경험을 가진 학생들이 재미와 소통의 창조적 공간을 동아리에서 제공할 수 있다. 미래의 창업네트워킹은 창업동아리 활동 경험을 통해 전 생애에 걸쳐 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Park, 2013)



<그림 1> 청년창업에 창업동아가 주는 이점

2.4 창업의지

창업의지는 창업에 대한 행위 의도적 태도를 의미하며 창업이라는 긴 과정의 첫 단계이다. 또한 의지와 행동의 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창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Krueger & Carsrud, 1993)의지는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Fishbein & Ajzen, 1975). 또한 창업의지는 개인의 태도와 경험을 창업이라는 행동으로 매개한다. 또한 Bird(1988)에 따르면 창업이란 분명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창업초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창업의지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창업의지는 특성화 고등학생들이 창업교육이나 창업동아리 활동을 통해 창업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창업을 하려는 의지로 정의한다.

2.5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는 진로발달이론에서 강조하는 개념으로, 에릭슨의 인간발달 개념을 진로교육에 도입한 것이다. 이 같은 발달적 접근의 기본 논리는 인간의 다른 신체적, 정신적 발달과 마찬가지로 진로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기능이 어려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청년기에 성숙해진다는 것이다(Kim, 1997). 즉 진로에 관해 지식이나 태도 등의 성숙은 생의 어느 한 시기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애 단계에 따라 변화하고 발달하므로, 일정 시점에서의 진로결정수준은 발달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일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진로탐색과 계획 및 준비를 위한 기초소양을 키움으로써, 진로개발역량의 기초를 배양하는 등의 진로인식(Career Awareness)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중학교 단계에서는 초등학교에서 함양된 진로개발 역량의 기초를 발전시키며 다양한 직업세계와 교육기회를 탐색하고, 이후의 진로를 디자인하고 준비하는 진로탐색(Career Exploration)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중학교까지 형성된 진로개발역량을 향상시키고 고등학교 이후의 진로를 디자인하고 그를 실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진로준비(Career Preparation)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Hwang, et al., 2012).

<그림 2>는 방기혁교수의 연구를 기반(Bang, 2006)으로 창업교육을 통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진로교육의 개념을 확인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초등학교에

서는 진로를 인식하는 단계이고, 중학교는 진로탐색단계, 일반계 고등학교는 진로준비단계, 특성화고등학교는 진로준비 및 실행단계로 진로교육의 학습내용이 수준별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창업교육을 통한 진로교육 단계

진로성숙도는 개인이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할 때 자신과 직업세계의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적응해가는 준비정도를 말한다. 결정성은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고한 정도, 자신이 갖고자하는 진로 및 직업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는가를 의미하고 확신성은 진로선택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앞으로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개인적 믿음과 확신 정도를 의미한다. 셋째, 준비성은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와 준비정도, 그리고 진로에 대한 관심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진로정보 수집능력을 의미한다(Hwang, et al., 2012).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를 결정성, 확신성, 준비성등을 측정변수로 사용한다.

III.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비즈쿨 사업 등 창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창업교육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에서 창업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발적인 진로개발이나 창업준비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신장하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창업과정을 팀 활동을 통해 수행해 봄으로써 개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조직에서의 소통방식 등도 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창업동아리 활동이 창의성과 리더십을 신장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연구가설을 창업동아리 활동 유무에 따라 진로성숙도와 창업의지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설정하였다.

가설 1 : 창업동아리 활동 유무는 진로성숙도(결정확신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 창업동아리 활동 유무는 진로성숙도(준비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 창업동아리 활동 유무는 창업의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IV. 실증분석 및 결과

4.1 자료수집과 표본의 특성

본 연구를 위한 연구대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중에서 27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에 앞서 학생들에게 연구자가 연구목적과 피험자의 권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설문참여를 부탁하였다. 본 연구는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수를 구성하는 모든 개념에 대해 복수 항목의 설문을 개발하였고, 측정도구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선행연구가 미비할 경우 관련 연구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설문항목을 개발하였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창업동아리 활동을 한 경우는 전체 274명중에서 134명으로 48.9%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수(비율)
성별	남	171명(62.4%)
	여	103명(37.6%)
학년	1학년	107명(39.1%)
	2학년	94명(34.3%)
	3학년	73명(26.6%)
창업 동아리 활동	참여	134명(48.9%)
	미참여	140명(51.1%)
합계		274(100%)

4.2 잠재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창업동아리 유무에 따라 진로성숙도와 창업의지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우선 설문항목들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성을 실시하였다.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검증 결과, 3개의 항목의 Cronbach's α 값이 0.8이상 나타나 측정항목들이 비교적 신뢰할 만한 수준에서 측정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신뢰도 분석 결과에 따라 14개 문항을 대상으로 최대우도법과 사각회전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유치가 1.0이상인 요인 수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3개의 요인구조가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숙도의 결정성과 확신성은 하나로 묶여서 결정성과 확신성은 하나의 잠재변수로 정의하였다. 요인분석에 앞서 분석될 표본의 상관행렬 크기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KMO(Kaiser-Meyer-Olkin)

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KMO값이 0.891로 나타나 변수와 관측치의 수가 적당하다고 볼 수 있었다. 타당성과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탐색적 요인분석/신뢰도분석 결과

항목	요인 적재값			Cronbach's α
	요인1	요인2	요인3	
성숙도1	0.104	0.886	0.164	0.905
성숙도2	0.111	0.889	0.168	
성숙도3	0.122	0.836	0.07	
성숙도4	0.307	0.716	0.295	
성숙도5	0.242	0.686	0.38	
성숙도6	0.108	0.187	0.85	0.847
성숙도7	0.187	0.026	0.845	
성숙도8	0.156	0.373	0.698	
성숙도9	0.034	0.247	0.761	
창업의지1	0.843	0.211	0.115	0.903
창업의지2	0.842	0.173	0.104	
창업의지3	0.862	0.241	-0.016	
창업의지4	0.751	0.022	0.2	
창업의지5	0.836	0.107	0.147	
고유값	3.69	3.638	2.88	
전체변량(%)	26.355	25.987	20.572	
누적변량(%)	26.355	52.342	72.914	

4.3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창업동아리 가입 유무는 2가지 값을 가지므로 T-test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T-test을 실시하기 위해서 우선적은 두 집단 간 분산의 동질성을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확인하였다.

<표 4>는 Levene 등분산 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검증결과 진로성숙(결정확신성), 진로성숙(준비성), 창업의지 모두 영가설(두 집단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다)이 채택됨에 따라 등분산이 검증되었다.

<표 4> Levene 등분산 검증 결과표

구성변수	Levene등분산검증 F값	유의수준
진로성숙(결정확신성)	0.005	0.946
진로성숙(준비성)	0.480	0.489
창업의지	1.974	0.161

<표 5> 가설검증 결과표

구성변수	창업동아리 활동				T값	가설 채택
	유		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진로성숙(결정확신성)	3.70	0.872	3.38	0.919	2.91**	채택
진로성숙(준비성)	4.08	0.709	3.99	0.703	1.06	기각
창업의지	3.28	0.945	2.95	0.939	2.86**	채택

*p<0.1, **p<0.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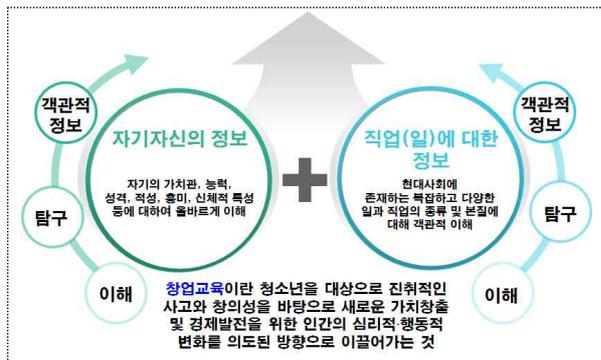
<표 5>에 따르면 진로성숙(결정확신성)은 창업동아리활동의 경우는 5점 만점에 3.7으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그에 비해 진로성숙(준비성)은 창업동아리활동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의지는 창업동아리 활동에 따라 95% 신뢰구간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본 연구는 창업동아리 활동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정의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창업동아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업동아리의 활동의 필요성을 검증하였다. 비즈쿨 학교중에서 특성화고등학생들이 창업동아리 활동을 경험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이 창업의지나 진로성숙도 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업의 경우에서도 피고용자들이 적절한 창조적 역량을 보유한 경우 더욱 조직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집단적 창의성 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처럼 창업동아리 활동은 단순히 창업뿐만 아니라 진로를 결정하는 성숙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본 연구에서 알 수 있었다.

창업동아리 활동은 공동체를 통해 서로 다른 생각이나 행동을 계획적으로 또는 우연적으로 상호활동을 통해 조직의 공동의 힘으로 새로운 지식이나 아이디어, 문제해결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신장할 수 있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 청소년 창업교육의 방향성

따라서 청소년 대상 창업교육이나 진로교육은 기본 방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취적인 사고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창출 및 경제발전을 위한 인간의 심리적·행동적 변화를 의도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방법으로 자기주도를 기반으로 하는 문제해결중심형 창업동아리 활동이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비즈쿨 학교중에서 특성화 고등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함에 따라 일반화하는데 문제를 있다고 볼 수 있어, 다음 연구에서는 일반화를 도출하기 위해서 좀 더 다양한 학생군들을 대상으로 함으로서

한계점을 극복할 것이다.

추가적인 연구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창업동아리활동에 대한 효과도 커질 수 있을 것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REFERENCE

Bang, G. H.(2006), Design and Management of Differential Teaching-Learning Process for Subject Matter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19(4), 35-49

Byun, Y. J., Yang, Y. S. & Kim, M. S.(2014), The Study of Metrics development for Entrepreneurial Program Effectivenes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4), 77-86.

Bird, B.(1988),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42-453.

Choi I. S., & Yoon, B. Y.(2014), New Challenges for Korean Medical Education: Enhancing Students' Abilities to Deal with Uncertain Ill-Defined Problems,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16(3), 111-118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Han, S. H.(2008), The Effects of the Project-Based Learning on LIS Education: Focused on Students' Problem-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2(3), 81-101.

Hwang, M. K., & Moon, Y. J.(2012), The Effects of Career and Work Competen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Students in Academic High Schools - With a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Maturity,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19(4), 1-25.

Jin, M. S., Son, Y. M. & Song, C. Y.(2012), The Study of Creative Career Development Program effect,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5(1), 169-185.

Katz L. G., & Chard, S. C.(1989), *Engaging Children's Minds: The Project Approach*, NJ: Ablex.

Kim, B. H.(1997),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M. J., Park, K. P., Seo, D. G., & Ihm, J. J.(2014),The relationship between dental graduate students' MBTI types and academic achievement in problem-based learning,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6(4), 291-297

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ervice(n.d.), *High School Status*, Retrieved from <http://kess.kedi.re.kr>

Krueger, N. F., & Carsrud, A. L. (1993), Entrepreneurial intentions: Apply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5(3), 315-330.

Lee, J. Y.(2013),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Problem Based Learning(PBL) Teaching-Learning Process Plan*

Applying Creative Thinking Technique, Major in Home Econom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 Ministry of Education(2015), Retrieved from <http://www.moe.go.kr/web/1096/ko/board/view.do?bbsId=141&boardSeq=60747>
- Nam, C. A.(2102), *A Study of the Effects of the Characteristics of Bizcool Education, Social Support and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Environment on the Learning Outcome and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Interdisciplinary*,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Park, D.(2013), Foundation Club and Collective Creativity, *The HRD review*, 2013(9), 60-87
- Yang, Y. S. & Kim, M. S.(2015), Study on university-based startup promotion through Seed Investment-Induced: The Case of Hanbat University Startup Item Market alidation ProgramThe Study of Metrics development for Entrepreneurial Program Effectivenes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3), 185-193.
- Yang, Y. M.(2015), *The effects of creative problem solving team project on creativity and class satisfac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 Thesis, Department of Major in Convergent Gifte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ongsil University.
- KISED(2015), Bizcool retrieved from <http://www.kised.or.kr/bus/edu1.asp>

An Assessment Study for The Impact of Startup Club Activity by Bizcool Students on Their Entrepreneurship Will and Maturing Their Career Path

Yang, Young Seok *

Kim, Myung Seuk **

Abstract

About 500 Bizcool High School will be designated by the year of 2017. The policy of designating Bizcool will promote startup club activity among Bizcool high school Student. In particular, the startup club activities will help Bizcool high school student fixing their career path after graduation by enhancing their creativity, leadership, team spirit, and problem solving ability through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entrepreneurship and embodying the startup process taking real startup experience. Hence, this paper set and test hypothesis of assuming the differences with respect to entrepreneurship will and maturing career path whether they have startup club activity as presenting Bizcool high school or not. The empirical test have bee done over 274 Bizcool high school students. The result have shown that significant level of differences(Determinants and Confidence) are found between the group of having startup club activity and those of not having.

Keywords: Startup club Activity, Bizcool High School, Problem based Learning, Project Based Learning, Entrepreneurship Will, Maturing Career Path

* Corresponding Author, Hanbat Nation University, GSEM, Department Chair, ytony@hanbat.ac.kr

** Co-Author, Hanbat Nation University, GSEM, Department, Professor, kmsjws@hanbat.ac.kr